

현대자본주의국가 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연구

The critical study on the theory of the crisis of modern capitalist state

고 대 만*

目	次
I. 서론	III. 현대 자본주의국가 위기론 분석
1. 연구목적	1. 자유주의적 접근 분석
2. 연구방법	2.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분석
II. 자본주의국가 위기에 대한 체계론적 분석틀	IV. 현대 자본주의국가 위기론에 대한 체계론적 비판
1.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개념	1. 자유주의적 접근 비판
2. 국가의 기능	2.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접근 비판
3. '위기'의 개념	V. 요약 및 결론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국가에 대한 논의의 대두는 자본주의체제의 존속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적 구도 내에서 자본주의체제의 존속 문제를 해명해야 했다. 어네스트 만델(Ernest Mandel) 같은 이들은 마르크스 원래의 논리에 충실하여 정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의 측면을 중시하여 국가의 자율성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하버마스, 오페, 오코너 같은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경제에 개입하는 국가가 이중적인 딜레마에 처하여 위기에 봉착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케인즈주의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이 경제체계의 작동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여겨져 국가의 역할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이후의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대해서 케인즈주의적 접근이 설명력을 상실하면서 프리드만 등의 통화주의자가 득세하기 시작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더 심하게는 국가의 재정·금융정책의 효력마저 의심하는 합리적 기대학파의 형

* 제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전임강사

성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공급중시 경제학이 등장되어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의 기초를 이루기도 한 바 있다. 그렇기는 하나 주류적인 입장에서든 인플레이션, 경기침체, 실업 등의 자본주의의 위기적 징후에 대해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볼 때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나,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나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실패, 국가위기의 문제가 자본주의체제의 유지 존속과 관련하여 중심적인 의제로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가위기의 진정한 본질을 규명하고, 그런 위기발생의 역동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틀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위기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과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을 체계론적인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현대 자본주의국가 위기론을 비판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우리는 체계론적 접근방법(systems approach)을 채택할 수 있다. 국가 위기 현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한 체계론적 접근방법으로는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s Theory), 파슨즈의 사회체계 모델, 이스튼의 투입-산출모델 등이 있다. 체계론적인 입장에서의 위기는 체제작용의 정지나 그와 유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일반체계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체제가 투입과 산출의 기능을 수행하는 개방체계라는 점이다.¹⁾ 국가는 내외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체계라고 정의된다. 체계로서의 국가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속하고 있다.²⁾

파슨즈의 AGIL모델은 체제위기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상당히 유익한 이론적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다. 체제가 존속하기 위한 기능적 필수요건(functional prerequisites)은 하위체제의 기능장애 현상, 그리고 하위체계간 원활하지 못한 교환으로 말미암은 체계간 균열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스튼의 투입-산출 모델에서 요구중압, 산출실패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면 체제의 위기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생산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즉 국가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런 능력이 없을 경우 위기에 처함을 나타낸다.

위에 개략적으로 제시된 이론적 도구들을 사용하여 2장에서 자본주의국가 위기에 대한 체계론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대표적인 자본주의국가 위기론 즉 자유주의적 입

1) 이용필, 정치체계(서울: 교육과학사, 1985), p. 31.

2) 이용필, "국가의 체계론적 모델",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서울: 법문사, 1987), p. 28.

장과 마르크스적 입장의 위기론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사용해서 3장에서 분석된 자본주의국가 위기론을 비판한다.

II. 현대 자본주의국가 위기에 대한 체계론적 분석틀

1.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성격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특징은 경제와 여타 부문에 대한 국가 개입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서구 각국은 경제성장을 지속시키는 데 갈수록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문제들로 말미암아 국가는 좀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선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국가가 경제회복에 깊이 개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의 일반적 침체에 따라 보다 많은 요구가 국가로 향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경기침체 때문에 국가로서도 그러한 요구를 제대로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제 국가는 감소된 경제적 능력에 맞도록 대중의 요구를 축소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하게 되었다.³⁾

위의 시각이 현대자본주의 국가를 보는 다원주의적인 입장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네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이론적 부적합성을 들고 나오면서 나름대로 자본주의국가에 대한 시각을 정립한다. 그들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이 국가개입의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설명이 주로 국가독점자본주의 이론에 대한 논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오마르크스주의적 국가이론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에 대한 자유주의적 가정 즉 케인즈에 의해 고취되었던 국가개입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기반이 되는 가정인 '중립적인 사회계획자로서의 국가'를 논박하는 것이다.⁴⁾

2. 국가의 본질적 기능 (= 정치체계의 본질변수)

1) 국가기능의 확대

현대 자본주의체제에서 많은 분야에서 국가개입의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경제를 비롯한 여타의 많은 부문에 개입됨으로써 종전에는 시민사회에서 수행했던 역할들이 현대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그 역할을 국가가 담당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정치영역이 확대되었다 혹은

3) Colin Crouch, "The State, Capital and Liberal Democracy," in C. Crouch(ed.) *State and Economy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Croom Helm, 1979), p. 15.

4) 박상섭, *자본주의국가론* (서울: 한울, 1987), p. 19.

많은 부분이 정치화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체계론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체계가 여타의 하위체계와 깊숙이 관련을 맺음으로써 하위체계들간 상호의존적 관계가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2) 개방체계로서의 국가

국가는 다른 모든 인간의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사회 안에서 생성되고 또 존재한다.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의 제도들은 상호분리시킬 수 없으리만큼 밀접하게 얽혀져 있다. 립슨(Leslie Lipson)은 정치, 국가 그리고 정부를 개념적으로 구별함으로써 국가의 개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사회는 모든 인간관계와 집단들을 포괄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가장 넓은 개념으로부터 가장 좁은 개념으로 옮겨가게 되면 사회라는 개념 다음에는 정치라는 개념이 부각된다. 또 정치보다 더 한정된 개념은 국가의 개념이다. 여기서 국가란 정치과정들이 조직화되고 또 공식화되는 제도라고 하겠다. 국가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치가 존재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정치가 존재하는 경우에 반드시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⁵⁾

그러나 국가는 정부라는 가장 좁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국가의 하위체계라고 하겠다. 정부는 공식적 위치에서 권위역할을 국가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권위당국자들을 의미한다.

힌즈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를 규제하면서 동시에 어떤 범위에서는 사회에 따라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가가 사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대내적으로 정부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주권적 권력이다.”⁶⁾ 이와 같이 국가가 내외적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또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개방체계라고 정의된다. 다시 말해서 체계로서의 국가는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것이 국가에 유입되어 그것이 환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국가는 그 구조와 과정을 통해서 유입된 투입을 산출으로 변환시킨다.⁷⁾

3) 국가와 그 환경 간의 교환

파슨즈는 다른 사회학자들의 경우보다 교환의 개념을 대규모체계에 관한 가장 추상적 수준에서 다루었다. 특히 그는 사회수준에 있어서 체계들간의 교환, 즉 정치체와 경제간의 교환에 대해서 그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5) Leslie Lipson, *The Great Issues of Politic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5), p. 51.

6) Otto Hintze, "Th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Reinhard Bendix, et. al., eds., *State and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p. 155~156.

7) 이용필, "국가의 체계론적 모델", p. 28.

모든 경제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치체와 경제에는 교환들의 이원적 집합 즉 4개의 교환의 전부가 2개의 어느 방향에서 일어난다고 가정되고 있다. 파슨즈는 G= 정치체, A= 경제, I=통합, L=유형유지로서 표기하고 있다. 그는 정치체와 경제간의 경제관계들과 교환에 대한 개념화를 <표 1>에서와 같이 제시하였다.⁸⁾

<표 1> 정치체와 경제간의 이중교환

G에의 투입 요소들	<u>생산력 통제(M)</u>	
A에의 투입	<u>효율에의 기회(P)</u>	
경제(A)		정치체(G)
G에의 산출 결과들	<u>집합체에의 서비스 공약(P)</u>	
A에의 산출	<u>유동적 자원의 배당(M)</u>	

<P : Power, M : Money>

유동적 자원이 정치체-경제의 경계를 걸쳐서 배분되는 경우, 경제와 정치체에 있어서 어떤 인간과 집합체들이 상호의존적 관계들에 종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자원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고 또 집행한다. 파슨즈는 교환의 매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각 교환은 교환의 매체에 의해서 수행된다. 이 경우에 있어서의 매체는 특히 부와 권력을 포함한다.

정치체와 통합의 하위체계들 간의 교환은 <표 2>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2> 정치체 및 통합체계 간의 이중교환

I에의 투입 요소들	<u>정책결정들(P)</u>	
G에의 투입	<u>이익-요구들(I)</u>	
정치체(G)		통합(I)
I에의 산출 결과들	<u>리더쉽책임(I)</u>	
G에의 산출	<u>정치적 지지(P)</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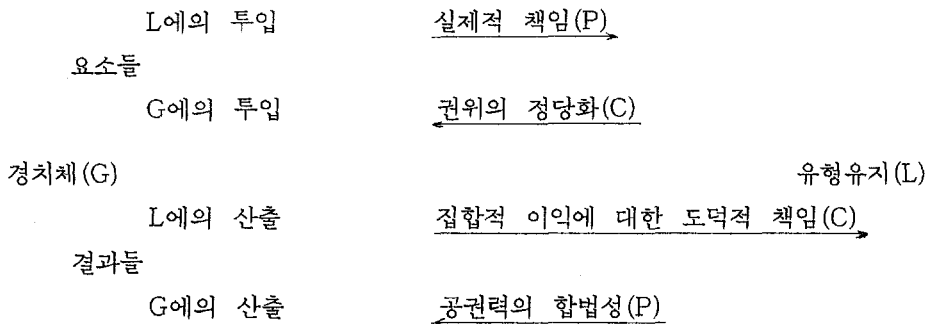
<P : Power, I : Influential>

8) William C., Mitchell, Sociological Analysis and Politic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7), p. 78.

이러한 교환에 있어서 요소들과 결과들의 범주들은 경제의 영역에서보다 더 익숙한 것이라 하겠다. 피슨즈는 이러한 교환들의 범주를 재래의 정치학에 도입한 것이다. 그는 지지와 이익-요구들과 같은 현상은 정치체의 고유한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하위체계의 부분들로서 가정하였다. 정치학은 이러한 범주들을 엄밀한 의미에서의 정치로서 오랫동안 간주해 왔으며, 결코 사회의 어떤 다른 부분의 파생요소를 간주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슨즈는 이러한 요소들이 정치적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가정해서 개념화하려고 시도했다.⁹⁾

잠재적 유형유지 하위체계와 정치체 간에서 교환들의 집합이 일어난다고 피슨즈는 가정하였다. 그는 정치체 이외의 어떤 하위체계에 있어서 결정들과 행동들의 근원에는 권위와 책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의 <표 3>은 이러한 교환들을 보여주고 있다.¹⁰⁾

<표 3> 정치체와 유형유지 간의 이중교환



<P : Power, C : Commitment>

4)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국가는 체제내외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본질적 기능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생존해 나갈 수 있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체제에 있어서 국가가 담당하는 기능은 확대되었으나 그 기능의 수행이 항상 불변적인 것으로 구조화된 것은 아니고 그 기능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위기 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의 수행 여부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위기의 문제는 본질적 기능의 수행능력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튼은 정치체계를 가치들이 사회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배분되고, 이러한 배분이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권위적인 것으로 수용되는 상호작용의 유형이라고 규

9) Ibid., p. 79.

10) Ibid., p. 80.

정하였다.¹¹⁾ 어떠한 형태의 체제이든간에, 경제적 또는 종교적 체제와 대조되는 정치체제로서 작동하는 특징적 양식은 사회에 대해서 가치들을 배분할 수 있는 체제의 가용력에 의지하고 있다. 이것은 두개의 주요한 변수 또는 변수들의 집합(사회에 대해서 결정들을 내리는 가용력과 관련된 행태와 대부분의 성원에게 권위적인 것이라고 빈번히 수용할 수 있는 확률), 즉 본질적 변수들이라고 하겠으며 이것들로 말미암아 정치체제와 다른 모든 타입의 사회체제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든 다른 변수는 비본질적 또는 우연적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일 우리가 민주정치와 같은 체제의 분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체제와 관련된 정치적 관계들의 특징적 유형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포함해서 본질적 변수들을 재정의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정치체제의 존속 즉 모든 정치생활의 기초과정을 분석의 수준으로서 생각한다면 민주정치와 같은 특수형태의 존속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변수들이었던 것이 사회체제의 한 종류로서 생각되는 모든 타입의 정치체제에 관해서 부수적인 것이 된다. 그래서 이스튼은 모든 종류와 어떤 종류의 정치체제에 대해서 두 개의 본질적 변수를 “어떤 사회에 대한 결정들과 그 집행” 그리고 “사회의 다수에 의해서 권위적 또는 구속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상대적 빈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¹²⁾

3. '위기'의 개념

위기라는 말은 ‘구분하다 혹은 분할하다’와 ‘가려내다, 결정하다’의 뜻을 가진 그리스어로부터 파생된 것인 바, ‘구별 혹은 결정’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¹³⁾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위기란 “인간과 사건들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진실의 순간”이었다.

위기와 관련된 또 다른 의미는 “환자의 유기체가 지닌 자체치유력이 회복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것인가를 결정하는” 질병 과정상의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¹⁴⁾

경제이론상으로 위기는 17세기 후반에는 객관주의적 의미로 사용되어 일반적인 시장불균형 조건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19세기 초가 되면, 위기라는 단어는 “병리적” 상황과 보다 정상적인 상태를 서로 대비시키는 데 널리 사용되었다. 모든 경제학자들 가운데서 가장 통찰력이 많았던 시몽 드 시스몽디는 위기란 근대 초기의 유럽에서는 물론이고 봉건

11) D. Easton,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65), p. 21.

12) *Ibid.*, pp. 96~97.

13) Randolph Stern, “Historians and crisis,” *Past and Present*, 52 (August, 1970)

14) Jürgen Habermas, *Legitimation Crisis* (Boston, Mass., 1975), p. 1. Stern은 위기란 “질병이 심화되거나 사라지거나 다른 질병으로 바뀌거나, 혹은 완전히 끝나는 경우마다 질병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Rader도 “히포크라테스가 위기란 말을 도입하여 죽음과 회복의 갈림길에 처한 어떤 질병의 전환점을 규정하고자 한다” 라고 언급한다: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 (New York, 1979), p. 187.

주의 시대, 고대사회의 경제적 곤궁기, 그리고 산업자본주의 시대에 공히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며, 특히 흉작이나 빈곤을 초래한 정치와 같은 외적 원인들로부터 발생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적으로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이론화하였다.¹⁵⁾

20세기에 들어오면, 실증주의적 사회과학의 득세와 함께 아래와 같은 보다 객관주의적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하나의 역사적 위기란 어떤 동적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조정된 발전이 아니라 통합되지 않은 발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적 균형과는 상이하다. 균형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여 역사적 과정이 무섭도록 질주해 나가는데도 사회적 요소들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정한 위기가 존재하는 것이다.”¹⁶⁾ 이같은 견해는 위기를 어떤 방대하고도 무절제한 사회적 변혁으로서 간주하는 야콥 부카르트(Jacob Burckhat)의 고전적 정의와 별로 틀리지 않는다. 부카르트에게 있어서 이같은 사회의 변혁은 “진정한” 것으로서 아주 드물게 발생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의미의 위기 개념들이 20세기의 제국주의적 적대와 세계대전을 기술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1) 위기에 대한 정통마르크스주의와 신마르크스주의 간의 인식상의 차이

정통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 정당화나 ‘정당성 위기’와 같은 개념들은 어떠한 지위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가 대중적 정당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기보다는 “자본주의 국가의 안정성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창안된 각종 제도들이 부과하는 일상적 요구에 대한 하위계급의 순종과 지배집단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합의에 의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신마르크스주의에 있어서는 정당성의 위기(즉, 충성심의 결핍)로 인해서 정치체제나 국가관료기구의 작동이 중단되는 강력한 경향이 존재하며 이 결과 민중의 정치적 반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의미에서 있어서의 정치적 위기란 충분한 신념이나 충성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치체제나 국가의 정상적 기능수행의 불능을 의미한다.

2) 체계론적 관점에서의 위기

정치체제는 재가치가 사회에 대해서 권위적으로 배분되는 상호작용들의 한 집합이며, 또는 다양한 요구들이 산출로 변환되는 상호작용의 한 집합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는 사회적 자원과 에너지가 다양한 목표의 추구를 위해서 동원되고, 지향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정치체제는 자기규제적이고 자체 지향적인 행태의 한 집합(a self-regulating, self-directing set of behaviors)이며, 환경과의 끊임없는 교환과 교류를

15) Moses I. Finley, *The Ancient Economy* (Berkeley, Cal., 1973), p.142.

16) M. Rader, *op. cit.*, p.190.

통하여 생존하는 개방적 적응체제이다.¹⁷⁾

체제내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작동할 수 있는 능력 즉 체제가동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중압을 경험하는 체제는 체제존속에 실패할 위기 즉 비존속(nonpersistence)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체제에 대한 중압은 동요사태들이 본질변수들을 체제작동의 임계적 범위 밖으로 몰아가서 체제변동을 유도하는 위협이나 압력을 의미한다.¹⁸⁾

권위당국자들이 정치적으로 유력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충족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 요구중압이 발생한다. 이러한 요구중압은 계속 상승하는 높은 불만상태를 조성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켜 체제붕괴의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지지약화와는 무관한 요구중압이 있을 수 있다. 이는 과도한 종류나 양의 요구표출과 그러한 요구들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시간문제 때문에 생기는 「요구투입과부하로서의 중압」이다.

지지의 쇠퇴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은 다양하지만 그것은 산출실패라는 하나의 범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산출실패 역시 체제중압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산출실패는 권위당국자가 체제내의 유력한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요구와 산출간의 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즉 구성원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당국자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또는 기꺼이 하고자 하는 것 사이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출실패는 일어날 수 있다. 권위당국자들이 나중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나 체제의 유력한 구성원들이 반대할지 모르는 상황을 예측하고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때이다.

그러나 실제로 유력한 구성원들이 그 조치를 그 상황에 부적절한 것이거나 그들의 요구에 부합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양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산출

17) D. Easton,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5), p. 128.

18) 동요사태란 체제에 대해서 위협적인 것이든 아니든 체제작동의 현재 유형에서 체제를 유리시키는 환경 또는 체제에 있어서의 모든 그러한 활동을 가리킨다. 동요사태는 그 수와 다양성에 있어서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존속할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중립적인 것, 완만한 것, 위급한 것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동요사태가 정치체제의 작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결과들을 무시해도 좋을만큼 미미한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로 체제로서 존속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체제분석에서 문제삼는 동요사태는 체제의 작동을 방해함으로써 체제중압의 원인이 되는 동요사태이다. 동요사태란 하나의 기성의 사실이 아니라 체제를 붕괴시키기 이전에 그것에 중압을 가하는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쟁이나 혁명 등과 같은 극적인 사회적 충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 정치생활의 압력에서 비롯하여 정치체제의 생존능력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고, 권위적인 결정이나 그 결정의 시행을 위한 구성원들의 능력에 심각한 억제를 가하는 사태들도 있다. 박재주, "자본주의국가위기의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이용필 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정치경제학(서울: 법문사, 1991), pp. 331~332.

실패가 이어난다.¹⁹⁾ 이러한 산출실패는 권위당국자들의 인간적인 오류, 지혜부족, 구성원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반응에 대처하는 기술의 부족 등 그들 자신의 자질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지만 산출실패의 더 중요한 원인은 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태도, 의견, 생활양식 등의 차이나 집단들간의 갈등이라고 규정되는 체계내적 구열 현상이다. 체계구성원들 사이에서 나타난 내적 불화와 갈등의 장기화는 정치적 지지대상들에 대한 불만을 누적시켜 산출실패를 초래한다.

이 밖에도 체계중압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회적 엔트로피를 증대시키는 자원고갈 현상이다. 이 경우의 자원에는 내적 자원인 권위당국자들의 능력과 외적 자원인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연적 사회적 수단을 포함한다. 권위당국자들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기술, 지식, 조직력 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중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며,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외적 자원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도 중압의 해소에 성공하지 못하여 결국 위기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물론 정치체제가 직면하는 붕괴위기상황은 다인과정의 복합적 현상이다. 그러한 위기상황은 여러가지 요인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체계중압들의 상호촉진적 작용의 결과이다.

Ⅲ. 현대 자본주의국가 위기론 분석

1. 자유주의적 입장의 국가위기론 분석

자유주의적 입장의 위기론은 다음과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1a) 다원주의적 출발점 : 과부하국가 이론가들은 자주 권력관계를 분산된 권력의 전지에서 특징 짓는다 : 권력은 다양하고 경쟁적인 이해관계들을 대표하는 다수의 집단들에 의해 공유되고 교환된다. 그러므로 정치적 결과들은 다수의 과정들과 압력의 결과이다 : 정부는 여러 요구들을 놓고 중재하고 판결을 내린다.

(1b) 케인즈주의 경제정책의 초기성과 더불어 전후의 시장사회는 대중들의 풍요의 증대와, 전후 기간의 전반적인 번영 즉 소비재, 주택, 텔레비전의 보급, 그리고 오락산업에 있어서 호황을 야기한다.

(2) 따라서 기대들은 고차적인 생활수준 즉 소득과 부의 증대, 학교교육과 고등교육 기회의 증대와 연결되어 상승한다.

(3) 갈망들은 권위와 지위에 대한 존경의 쇠퇴에 의해 강화된다. 이것은 다른 무엇보다

19) D. Easton, *A Systems Analysis*, pp.230~231.

20) D. Held, *Models of Democracy*(Dales Brewery : Polity Press, 1987), pp.232~233.

도 사적인 창의력과 책임의 기반을 침해하는 풍요의 증대, '자유로운' 복지, 건강과 교육의 결과이며, 또한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약속한 평등주의적이고 실력주의적 이데올로기들의 결과이다.

(4) 이런 맥락에서 집단들은 정치가들과 정부에게 강하게 압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특수 이익과 야망들 즉 높은 임금(대부분의 피고용집단들의 경우), 쇠퇴하는 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직업보호(약간의 노동조합들의 경우), 높은 이익률(은행들의 경우), 낮은 이자율(국내 산업을 포함하여 차용인의 경우), 낮은 가격(소비자집단의 경우), 높은 가격(약간의 실업조직들)을 충족시킨다.

(5) 최대한의 득표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가들은 너무나 자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하며, 때때로 서로 모순된 그러므로 불가능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정당간 경쟁이 더 커다란 약속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나선형적 과정을 낳는다.

(6) 이리하여, 갈망들은 강화된다: 정당들은 동일한 목적 즉 더 나은 생활수준 달성을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경쟁적인 수단으로 여겨진다.

(7) 통치전략의 면에서 볼 때, 정당들은 미래의 득표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너무나 자주 유희전략을 쓴다. 예를 들면 경제를 '정상궤도'에 올려 놓으려는 혹은 '젊은 공격자들'을 다루기 위한 '확고한 조치'가 좀체로 취해지지 않는다.

(8) 유희전략과 행정가에 의한 자기이익의 추구는 필요이상 너무 많은 국가기관들(건강, 교육, 산업관계, 가격, 소득 등에 관한 기관들)을 낳게 되어 점차로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본래의 의도된 목적을 종종 충족시키지 못하는 '정체가 명확치 않은' 관료기구들만 무성해진다.

(9) 국가는, 예를 들어 그 계획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에 직면하게 되어 확고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없게 된다. 공공지출은 과도하게 되며, 인플레이션은 바로 그런 문제의 한 징후이다.

(10) 국가는 팽창함에 따라서 점차로 개인이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 '자유로운 사기업'을 위한 여지를 파괴한다.

(11) 민주적인 압력과 요구에 덜 민감한, 다른 무엇보다도 '확고하고', '단호한' 정치적 리더십에 의해서만 깨뜨려질 수 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의 국가위기관 분석

1) 신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자본주의 위기론²¹⁾

자본주의의 위기에 관한 한 마르크스주의는 가장 집요하고도 체계적인 분석을 주도해 왔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 속에는 위기에 대한 여러가지 개념들(예컨대, 생산의 무정부성, 이윤율 저하의 경향, 공황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모순 등)이 제시되고 있다. 신정통마르크스주의 위기론은 비록 그 내부구성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위기에 관한 마르크스의 논의를 주로 이윤율 저하경향 법칙과 과잉생산에 의거하여 해석하는 공통성을 갖는다.

신정통마르크스주의 위기론은 위기란 자본축적의 중단(혹은 파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위기는 자본주의 발달의 정상적 모습이기 때문에 결코 우연적,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의 법칙적 필연성을 갖는 것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자본 그 자체의 논리로 인해서 위기는 객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정통 위기론은 자본이 마치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처럼 주체성을 가지고 경제과정을 지배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반면 인간들은 객관적 경제법칙의 단순한 연기자 이상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한다.

2) 하버마스의 자본주의국가 위기론

하버마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갈등의 원천을 임금노동과 자본관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위기를 대표하는 체계로서 보고 있고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 스스로를 마르크스주의자로 여기고 있다.

하버마스는 국가개입은 위기의 근원을 제거함으로써가 아니라 단지 그것을 다른 영역, 즉 정치 또는 국가의 영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경제적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버마스는 정치적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가지 유형의 위기 경향을 예측하는데, 그것은 합리성의 위기와 정당화의 위기이다.

만일 국가 또는 행정체계가 필요한 분량만큼의 합리적 결정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과 재정위기와 같은 사태들이 발생할 것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합리성의 위기이다.

반면에 국가의 '집합적 자본가'로서의 계획의 역할이 그 개입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 조건, 즉 국가가 경제체제 외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 가정을 침해할 정도로까지 강조된다면 이것은 정당화의 철회를 결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21) 김성국 역, 현대자본주의 위기론, (서울: 나남, 1990), pp.51~94. James O'Connor, The Meaning of Crisis: A Theoretical Introduction (Basil Blackwell, 1987)

하버마스는 국가기구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국가기구는 예상되는 개입과 개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부인, 체계를 위협할 정도로 그 피후견자들로부터 독립되는 것과 자신을 그들의 특정 이익에 종속시키는 것과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²²⁾

이러한 딜레마는 하버마스의 이원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의 회피(도구적, 또는 전략적 행위)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본적 정치규범인 정치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도구적 결정’이 의사소통 행위의 논리에 의해 규정된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수단만을 사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한다면, 그것은 합리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와 같은 전략이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당성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설적인 사실은 국가가 성장을 교란하는 위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전략(경제의 재정치화)이 바로 국가가 전통적인 정치규범을 위반한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버마스 자신의 표현대로 “행동의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어야 할 바로 그 순간에 그 범위는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다.”

3) 오페의 자본주의국가 위기론 분석

오페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이익의 충족과 민주주의적 정당화라는 모순적 절대 요청의 근원은 국가가 물질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기능적 요구(축적)와 정치권력의 사용에 대한 역사적으로 규정된 규범(정당화) 사이의 불일치에 놓여 있다.

오페에 따르면 완전고용 정책 또는 기타의 사회복지 정책들과 같은 개입주의적 사회정책들은 이제 정당화 기반으로서의 마력을 잃어버릴 정도로 일상적인 것으로 ‘재규정’되었다. 더우기 그러한 국가정책은 일단 주어진다면 철회할 수도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러한 철회는 계급 사이의 ‘사회적 평화’의 교란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사회정책은 물질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민간부문에서의 축적에서 나와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정책을 정지시킬 경우 정당성이 취소되고 ‘사회적 평화’가 교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축적에 부담이 된다. 이러한 뜻에서 오페는 “국가의 두가지 기능 즉 이윤의 보장과 이러한 보장에 대한 부정(정당화를 위한 잉여의 사용)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²³⁾

그에 의하면 이러한 위기에 대비하는 국가의 예방전략의 폭은 넓지가 못하다. 왜냐하면 이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민주적, 입헌적 규범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여 국가가 경제를 직접 떠맡는 파시즘적 방식이나 사적 기업이 직접

22) Jürgen Habermas, *Op. Cit.*, pp. 62~63.

23) Claus Offé, “Class Rule and the Political System,” *German Political Studies*, 1, p. 51.

통치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오페의 관점으로는 주어진 정치적 규범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유일의 전략은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을 비정치화시킴으로써 국가기구에 대한 기대와 책임을 경감시키거나(자유주의적-보수적), 혹은 정치적 억압 및 기율 강화를 통해서 정치적 갈등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것이다(사회민주주의적 선택).

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의 국가위기관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²⁴⁾

(1a) 마르크스주의의 출발점 : 정당들이 민주적이며 대의적인 과정들의 공식적인 규칙들을 통하여 공직 경쟁을 하는 반면에, 그들의 힘은 국가가 사적인 자본축적에 의해 상당한 정도 창출되는 자원들에 매여 있다는 사실에 의해 몹시 구속을 받는다. 국가는 대중의 선거적 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계급의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보이게 하는 한편 결국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들과 양립할 수 있는 결정들을 취해야만 한다.

(1b) 경제는 사회적으로 생산된(즉 인간들간의 복잡한 상호의존망을 통해서 생산된) 자원들의 사적 전유를 통해서 조직화된다. 생산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조직된다. 전후 얼마 동안 '케인즈적 국가'는 20년간의 두드러진 번영을 유지하는 것을 도왔다.

(2) 그러나 경제는 원래 불안정하다 : 경제성장은 항상 위기들에 의해 붕괴된다. 체계 내에서의 변화(정치적 경기순환의 바닥과 정상에서 생겨나는 고율의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점차로 광범위한 효과, 그리고 외부적 요소들(예를 들면 국제적인 정치사건들의 한 결과로서 원료의 부족)의 충격은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3) 따라서 현대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질서가 유지되려면 광범위한 국가개입이 요구된다. 국가의 주요 관심사는 자본주의경제를 유지하고(예를 들면 복지, 사회안전, 법과 질서를 담당하는 기관을 통하여) 계급 적대감을 관리하는 것이 된다. 국가는 항상 강력한 그룹들 특히 실업계와 노동조합들의 묵종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4) 정부는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경제와 시민사회의 더 많은 부분들에 대해 책임, 예를 들면 곤경에 처한 기업의 구제를 떠맡는다. 왜? 대회사 혹은 은행의 파산은 다른 무엇보다도 무수한 명백히 건전한 기업들,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쳐 결국 정치척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5) 정부와 국가는 점차로 다양화되는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일반적으로 행정적 구조들을 확대하여, 이리하여 그들 자신의 내적 복잡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이런 복잡성의 증가는 다시 협력에 대한 필요의 증대를 수반하며, 더욱 중요한 것으로

24) D. Held, *Op. Cit.*, pp.233~236.

는 국가예산의 팽창을 요구한다.

(6) 국가는 조세를 통하여 그리고 자본시장으로부터의 대부를 통하여 재정 조달해야 하나, 축적과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성장을 위태롭게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구속들은 거의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상황과 공공재정 위기의 창출을 조장한다.

(7) 국가는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체계적인 구속 내에서 적절한 정책전략을 개발할 수 없다: 그 결과는 정부정책과 계획(예를 들면 경제에 대한 'stop-start'적 접근, 소득정책의 유동적 적용)에 있어서의 계속적인 변동과 붕괴이다. 하버마스과 오페는 이런 것을 '합리성의 위기' 혹은 '합리적 행정의 위기'라고 부른다. 좌익정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국가는 대규모의 파멸을 야기시킬 수 있는 노동조합들(혹은 다른 항의집단들)의 힘을 두려워하여 철저히 그 비용과 지출을 삭감할 수는 없다: 좌익정당에 의해 지배를 받는 국가는 강력한 사회주의적 정책을 쓸 경우 실업계의 자신감이 침식되고 경제가 철저히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그런 정책을 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설득력을 제시하는 정부가 들어서고 물러나고, 정책들은 자주 바뀐다.

(8) 경제와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국가개입의 증대는 선택, 계획 그리고 통제에 문제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국가의 손'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잘 보이며 더 쉽게 알 수 있다. 생활영역 중 더 많은 부분들이 일반사람들에 의해 정치화된 것으로 즉 국가의 잠재적인 통제력 내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상황의 전개는 거꾸로, 예를 들면 결정에의 참여와 협의 요구처럼 국가를 향해 지속적으로 이전보다 더 큰 요구를 자극한다.

(9) 만일 이런 요구들이 이용가능한 대안들 내에서 성취될 수 없다면, 국가는 '정당화 위기와 동기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다른 무엇보다도 소득에 대한 투쟁, 직업장에 대한 통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본질과 질에 대한 통제는 현존하는 경제관리제도와 정치적 통제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10) 이런 상황 속에서 '강한 국가' 즉 다른 모든 것보다 '질서'를 우선하며, 반대를 억압하고 위기의 조짐을 강력하게 제어하는 국가가 출현할 수 있다.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중부와 남부 유럽에서 1930년대 후반과 40년대에 대부분의 반대행동을 분쇄했다. 누구도 그런 시도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고, 대의제 정부가 점차 더욱 '강한 무기'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1) 악순환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

(12) 그러나 체계의 근본적 변형이 배제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 폭동에 의한 국가권력의 전복의 결과로 생겨날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하나의 과정 즉 현존 질서의 재생산 능력의 계속적인 침식, 대안적인 사회주의 제도들...보다 많은 산업을 공적인

소유로 만드는 국가기관들, 훨씬 더 많은 자원들에 대해 이윤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국가 조직, 작업장내 민주주의 공동체 민주주의의 확대...의 점진적 출현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다.

IV. 현대 자본주의국가 위기론에 대한 체계론적 비판

1. 자유주의적 입장의 국가위기론 비판

자유주의적 입장의 견해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과세, 투자 등에 관한 정부의 부적절한 정책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부과되는 지나친 대중적 요구의 결과라고 판단한다.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선거제도 때문에 이러한 대중의 요구들에 반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헌팅턴에 의하면 광범위한 사회집단들이 갈수록 조직화되고 활동적으로 되어왔다는 사실은 곧 정부와 이익집단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긴장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체계론적 관점에서 위기는 그 체계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 발생한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설사 지나친 대중적 요구가 있다손쳐도 그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동력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는 위기상황이 아니라고 단정지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상황이 누적된다면 위기상황에 이르게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렇다고 해도 국가는 하나의 개방적 체계로서 과중한 요구에 대해서도 내부적 구조를 변형시켜 가면서까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 갈수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국가는 자기 안정화, 자기 조직화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국가를 하나의 '텅빈' 상자로 보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 내의 역동적인 적응과정이라든지, 여과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관료적, 행정적, 강제적 기구들로부터 파생하는 국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는 위기관리의 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오늘날의 사회운동은 단일이슈 중심의 운동이 주종을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운동들이 산발적으로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운동들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인간적인 오류, 지혜부족, 구성원들을 통치하고 그들의 반응에 대처하는 기술의 부족 등에서 더 큰 중압에 직면하게 되고 체계 붕괴의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법칙적 필연성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인 대응의 착오로 생겨날 수 있음이 지적되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는 체제 내적 구열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하겠다.

2. 네오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의 국가위기론 비판

이 입장에서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정치적 영역에서의 위기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즉 국가의 합리성의 위기, 정당화의 위기의 측면에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국가의 정당화의 위기를 점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권력이 부식하고 있다는 것도 그다지 명백하지 않다. 이 입장에서도 현대 국가를 '텅빈' 상자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관료적, 행정적, 강제적 기구들로부터 파생하는 국가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과소평가 한다. 또한 특정 정부는 시민들이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을 때 상처받기 쉽지만, 국가 자체는 반드시 붕괴 혹은 해체되기 쉬운 것은 아니다.

또한 전통적 형태들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많은 남녀들이 광범한 회의와 이탈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대안적인 종류의 제도들에 대한 명백한 요구로 바뀌지는 않았다. 과연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증대는 불가피한가? 뚜렷한 합의가치가 부재할 경우, 정치질서는 어떻게 결속되는가? 접착제를 제공하는 즉 자유민주적 정치체를 결속시키는 것은 단순히 정당성이 아닌 것만은 명백하다.

국가권력은 점증하는 요구에 직면하여 부식되고 있다고 주장되는데, 이 요구들이란 것이 모순들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간주되고 있다. 바로 이것은 결국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위기는 모순의 불가피한 결과라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위기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예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위기관리 능력의 탁월성의 여부에 따라 위기로도 비화되고, 단지 하나의 미미한 동요사태로도 그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국가가 휘말려 들어가는 방법에 대한 하버마스과 오페의 분석은, 합리적 행정의 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압력들에 대한 그들의 분석에서 보듯이, 옳은 면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계속적인 정당화에 대한 강조, 그리고 정당화 위기의 그럴듯한 만연은 납득이가지 않는다. 하버마스과 오페 둘다 현대의 많은 항의의 본질... 즉 우발적이고, 파편화된, 그리고 '방향이 없는' 본질...을 과소평가 한다.

V. 결 론

앞에서 살폈듯이 위기는 어떤 법칙적 필연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 위기관리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서구마르크스주의의 위기이론도 자본주의체제 위기를 자본축적 위기 혹은 자본실현의 위기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과 활동을 도외시함으로써 계급론적 위기이론과 자본주의 붕괴론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위기 관리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정치위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 최근의 위기이론들 역시 그러한 정치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의 대응메카니즘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전히 계급론적 위기이론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본주의체제는 내생적 위기경향 → 국가개입의 양적, 질적 증가 → 구조변화 → 자본주의 국가 위기 → 국가에 의한 위기관리 활동의 활성화 등의 과정을 통해 그 자체가 조정메카니즘으로 작동하여 왔으며 그러한 작동과정에서 구조적 탄력성과 기능적 적응성을 발휘하여 왔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자본주의체제를 소극적 환류루프와 적극적 환류루프가 상호 작용하는 자기 수정적 혹은 자기 조직화 체계²⁵⁾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며, 프리고진과 얀치 등이 주장하고 있는 무산구조이론에 따라 자본주의체제의 발전 과정을 '파동을 통한 위기와 질서' 혹은 '혼돈으로부터의 질서'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주의체제의 위기는 붕괴에 이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발전의 계기인 동시에 균형화의 한 형태이며 안정상태 유지의 과정이라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충분한 가동력을 보유하고 적절하게 요구에 대응해 나간다면 동요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충분히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5) 자본주의체제는 그것의 전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였고 중요한 도전에 적응하는 유연성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다. 비평형상태(non-equilibrium)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자기조직화복합체(self-organizing complexity)로서의 자본주의체제는 무질서의 창조적 기능을 통하여 지속적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가정된다. Yong-Pil Rhee, "Crisis and Order through Fluctuation in Capitalist System" in Bela H. Banathy & Bela A. Banathy ed., Toward A Just Society For Future Generations : Proceedings of the 34th annual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ystem Sciences, Portland, Oregon, July 8~13, 1990, pp. 1109~1118 참고.

참 고 문 헌

- 박상섭, 자본주의 국가론(서울: 한울, 1985)
- 이용필, 정치체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5)
- _____, 현대정치이론(서울: 박영사, 1986)
- _____, 외, 마르크스주의: 국가, 이데올로기, 정치경제학(서울: 인간사랑, 1990)
- _____, 외, 마르크스주의 국가론과 정치경제학(서울: 박영사, 1991)
- 임영일, 이성형 편역, 국가란 무엇인가(서울: 까치, 1985)
- 한상진 편, 국가이론과 위기분석(서울: 전예원, 1988)
- Aglietta, M.,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erience*(London, 1979)
- Baran, P. A., Sweezy, P. M., *Monopoly Capital: An Essay on the American Economic and Social Order*(New York, 1966)
- Bell, D., *The Cultural Crisis of Capitalism* (New York, 1976)
- Boddy, R., Crotty, J., "Class Conflict and Macro-Policy: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7, 1(1975)
- Bowles, S., Gintis, H., "The Crisis of Liberal Democratic Capitalism: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Politics and Society*, 11, 1(1982)
- Cleaver, H., Bell, P., "Marx's Crisis Theory as a Theory of Class Relations," *Research in Political Economy*, 5(1982)
- Crouch, C., "The State, Capital and Liberal Democracy," in C. Crouch(ed.) *State and Economy in Contemporary Capitalism* (London: Croom Helm, 1979)
- Easton, D.,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Alfred A. Knopf, 1964)
- _____, *A Systems Analysis of Political Life*(New York: Wiley, 1965)
- _____, *A Framework for Political Analysis*(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6)
- _____, *The Analysis of Political Structure*(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0)
- Finley, M. I., *The Ancient Economy* (Berkeley, Cal., 1973)
- Habermas, J., *Toward a Rational Society*(Boston: Beacon Press, 1970)
- _____, *Knowledge and Human Interests*(Boston: Beacon Press, 1971)

- , Theory and Practice (Boston : Beacon Press, 1973)
- , Legitimation Crisis (Boston : Beacon Press, 1975)
- ,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 Beacon Press, 1979)
- Harvey, D., The Limits to Capital (Oxford : Basil Blackwell, 1984)
- Held, D., Models of Democracy (Dales Brewery : Polity Press, 1987)
- Hintze, O., "The State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Reinhard Bendix, et. al., eds., State and Socie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 Jacoby, R., "The Politics of Crisis Theory : Towards the Critique of Automatic Marxism, II," Telos, 23 (Spring, 1975)
- Jantsch, E., Design for Evolution (New York : George Braziller, 1975)
- Kalecky, M., Theory of Economic Dynamics (New York, 1972)
- Lader, M.,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 (New York, 1979)
- Lipson, L., The Great Issues of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1965)
- Magdoff, H., Sweezy, P. M., The End of Prosperity : The American Economy in the 1970s (New York, 1977)
- Mattick, P., Marx and Keynes : The Mixed Economy (Boston, Mass., 1969)
- , Economic Crisis and Crisis Theory (London, 1981)
- Mitchell, William C., Sociological Analysis and Politic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67)
- O'Connor, J., 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 (N.Y. : St. Martin's Press, 1973)
- , The Meanings of Crisis : A Theoretical Introduction (Basil Blackwell, 1987)
- Offe, C., "Class Rule and the Political System," *German Political Studies*, 1
- Offe, C., Contradictions of Welfare State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84)
- , Disorganized Capitalism : Contemporary Transformations of Work and Politics (Cambridge, Mass. : The MIT Press, 1985)
- Poulantzas, N., Political Power and Social Classes (London : Humanities Press, 1968)
- , State, Power, Socialism (London : New Left Books, 1980)

- Rader, M., *Marx's Interpretation of History*(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 Rhee, Yong-Pil, "Crisis and Order through Fluctuation in Capitalist System," in Banathy, B. H. & Banathy, B. A. ed., *Toward a Just Society for Future Genetations : Proceedings of the 34th Annual Meeting of the ISSS*(1990)
- Stern, R., "Historians and crisis," *Past and Present*, 52(August, 1970)
- Weber, B. H. et. al. ed., *Entropy, Information, and Evolution*(Cambridge : The MIT Press, 1988)